

# 2010

2월 14일

## 제18권 7호 마데테스

신앙이 기쁨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 온석교회



## 칼럼 column

### ● 성령체험이 있어야 신자다 ●

신앙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앙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성령체험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성령체험은 신자로 하여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개입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 체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성령 체험하면 대개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진동이 오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불덩이가 내 가슴에 들어와 속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연상하겠지만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가령 고전 12: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구절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 된다. 즉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자는 그 고백 자체가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성령 체험인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기독교인은 이러한 성령 체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몸으로 체험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성령의 역사라면 좀더 신비하고 강렬한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은 무당의 세계에도 있다. 소위 신 내리는 곳을 받을 때 날이 선 작두 위를 뛰면서도 상처를 입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차라리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보다 그러한 능력이 더 신비하고 강렬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을 활동

을 맛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성령의 활동에 내가 참여되었음을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활동에 무능한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아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에 붙들려 생명에 참여된 증거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활동에 참여된 결과이고, 이것이 참된 성령체험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에게 소유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받음을 성령을 받아 소유함으로써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관계 안에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비는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신비는 어둠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 그 자체를 말한다. 즉 생명이 신비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생명의 역사이기에 신비다. 아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신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운 사건이다.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러한 생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신비의 세계란 생명의 세계를 뜻한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알고, 주로 고백하게 되는 세계로 이끌어 가며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게 한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다. 이러한 성령체험이 있는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신자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019-832-9049

## 주일낮 설교



### 무거운 짐, 가벼운 짐 마 11:28-30

#### ■ 진리의 결림돌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인정할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였고, 못 걷는 사람은 곧게 하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일들은 메시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온 자신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 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결림돌은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결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지 인간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기대와 열망에 맞는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별 볼일 나사렛 목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님이 하신 일도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단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상식에 맞는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식을 벗어나서 내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 밖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신자에게 오셔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은 교회의 전도지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문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온갖 생활고와 인생살이에 시달린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그분께 나아옴으로서 그 모든 수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쉬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지 될까요? 그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즉 자신을 고생과 수고로 몰아가는 환경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예수님의 일로 여길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말 그대로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편안함은 주어지지 않고 고생과 수고가 계속되기에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온갖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생활고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고달프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짐을 만들어 짊어지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쉼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에 해당합니까? 28,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짐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원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른 가르침이란 25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짊어지는 멍에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100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 아래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선행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히 상선벌악의 원리로 나아가게 되고 선행보다 죄가 많을 경우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범한 것보다 선행이 더 많을 경우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이 크다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항상 구원 받은 자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했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인의 행위는 그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라는 행위에 대한 세상의 시각만큼 그의 존재 가치가 평가됩니다. 세상이 청소를 천한 일로 여긴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천한 존재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것을 착하고 귀한 행위로 여긴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귀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착하다는 평가와 함께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즉 착한 행위가 없이 ‘나는 착하다’ 고 아무리 외친들 세상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신자다움이라는 것도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위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짊어진 짐입니다.

### ■ 쉬운 멍에 가벼운 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쉬운 무엇이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식을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구원의 길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길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오셨음을 안다면 자연히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함을 알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가 될 만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맞는 행위를 의의 조건으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실천과 행위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요구이며 신자다운 모습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배와 욕망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라 하시니라” 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쉬를 얻는다고 했는데,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멍에와 짐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자에게 십자가는 교회가 요구하는 실천 몇 가지를 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힘든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은 십자가로 온전히 증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천과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있어서 전혀 쓸모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짐을 벗고 마음의 쉬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멍에가 있고 짐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구원의 방식에서 나와야 하는 멍에고 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위에서 참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적 가르침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 아래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와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자연히 참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아래 있다면, 행위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행위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행위로써 자신의 신자 됨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보다 좀 더 낮고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는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신자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을 신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여러분을 이미 온전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함과 실천은 예수

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기 행위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에 매인바 되어서 용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 아니다.’ 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는 율법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또 다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에게 배움으로써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서 잠시 동안이라도 용서가 비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멍에는 멍에고 짐은 짐이되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기쁨과 감사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쉬이 있게 할 것입니다.

## 주일 오후 설교



### 교회의 일꾼

골 1:24-29

(8강 1.17일 설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실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 요리, 운동, 음악, 미술, 건축 등 모든 분야 모든 일에 실력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고 실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대우가 달라 집니다. 때문에 실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무시와 함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실력이 좋은 사람만이 좋은 대우와 함께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소위 강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실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도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앙에 실력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신자의 신앙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교 해봐도 그렇고, 스테반이나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갔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보면 누가 봐도 우리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십일조를 잘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죄의 유혹과 시험 등을 이기는 사람을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실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실력의 차이가 있다면 신앙의 실력과 천국의 문제는 어떻게 연관

될까요? 천국도 신앙의 실력에 따라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천국은 신앙으로 들어가되 실력의 차이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 다를까요? 항상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신앙의 실력이 없는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즉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면 거짓 선생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고 해도 옳고 그른 것은 분별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혼란이 실력의 문제였다면 사도의 서신은 골로새 교회의 실력의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합니다. 즉 이단이나 거짓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미혹한 성경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의 서신을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서신을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도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혼란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라면 아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긴바 되었으며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복음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는 4.5절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과,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역시 골로새 교회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거짓 선생의 말에 미혹되고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이 거짓된 미혹을 이기는 힘이 된다면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더욱 깊고 많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배우지 못한 신학적인 깊이 지식을 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만 사도가 복음의 근본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혹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지식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지식의 여부가 믿음과 연관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복음의 지식은 믿음과는 연관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말하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십자가를 말하나 내 욕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가 내 욕망에 맞추어 전달되는 말에 미혹될 때, 그런 우리 마음을 또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선생들의 복음은 신자를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할례를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표라는 것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몇 명 전도, 예배당 건축, 교육관 건축 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말하고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봉사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방향 자체가 달랐습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말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일꾼된 것으로 가르치지만 사도에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될 때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풍성해지는 것이야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으며 그것을 교회의 일꾼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백성들을 이미 충만한 존재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신자가 곧 교회의 충만이고 그러한 신자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족함이 아니고, 신앙의 행위가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은혜의 충만은 무시해 버린 채 자신의 행함과 실천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매우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충만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복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히려 당연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행함과 실천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를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물론 믿음에는 행함과 있고 실천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의 결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자란 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활동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의지로 인한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에 참여한 흔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이 신자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연히 주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의 자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짊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한 순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우리를 십자가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리켜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신자는 이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 수요일 설교



## 예언하지 말라

암 2:9-16

(4장 1.27일 설교)

성경에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요? 사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약이 없이 신약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모스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없다고 해서 믿음에 지장이 있다면, 아모스의 내용의 의미를 모른 채 죽은 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66권의 성경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성경 몇 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차피 66권 성경 전부를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을 봐야 하고 아모스나, 분량이 1장 밖에 되지 않은 오바다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는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와 악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을 인간의 구원에 두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미없고 어려운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냥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은혜가 어떤가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자에게 필히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과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구약이고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지서를 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신자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믿음에 붙들어 놓은 능력의 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두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자를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

님이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의 부강은 절대로 그들의 힘의 결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들의 근원이 되어주신 결과입  
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 위에 보존 하시면서 원하신 것  
은 자신들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  
신 약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을 받  
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  
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시 약자를 억압과 무시로 대했음을 뜻합니다. 이  
것이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여기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말은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자체가  
없는 존재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증거로 신앙생활 또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  
같이 악한 존재로 취급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외적인 신앙 행위가 신자와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12절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  
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러  
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는 말을 합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구별된 삶을 서원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에게 포도주를 마  
시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재미와 놀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귀를 거스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배척  
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  
은 말을 해야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으며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거나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  
르신 신자로서의 길 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원하는 이스라  
엘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었습니다. 더욱 부강해지고 더욱 힘을 가진 국가가 되어서 세  
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약자를 억압하고 괴  
롭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도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퍼에  
간 아이가 엄마의 손을 끌고 갖고 싶은 곳이 있는 곳으로 끌  
고 가서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 신앙은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  
리고 헌금을 한들 그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도  
천국도 몽땅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고 나니 세상  
이 시시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을 알고 나니 세상의 좋았  
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알고 나니 잠시 잠깐 후면 떠날 세상은 다만  
잠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곳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러니 세상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비  
록 타인보다 많은 것이 수중에 있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상  
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면 신자는 가난한 자, 약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며, 이 신앙에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  
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실상은 신  
앙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는 것  
입니다.

신앙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생  
각이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자신을 보지 말고, 이방  
인과 동일한 본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가진 자  
를 부러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신자라는 우  
리가 실상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것입  
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임을 깨닫는다면, 신자가 예수님 안에  
서 얻는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엣 것임을 알 것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목사

묵상기도 | 다 암 께  
사도신경 | 다 암 께  
찬 송 | 10장(통34)  
교 독 문 | 47(시105)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10장(통410)  
성경봉독 | 마 11:28-30  
설교제목 | 무거운 짐 가벼운 짐 (7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97장(통454)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통6)  
축 도 |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목사

사도신경 | 다 암 께  
찬 송 | 268장(통202)  
기 도 | 김종건 집사  
찬 송 | 400장(통463)  
성경봉독 | 골 2:6-7  
설교제목 | 그 안에서(1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97장(통454)  
주기도문 | 다암께

다음주기도 : 안옥섭 집사

##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목사

아모스 강해(7강)

## 인생은 포맷이 없다

신윤식



컴퓨터라는 것은  
사용하다 잘못 된 것 있으면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버리는  
포맷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도  
살아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처음으로 되돌려  
새로 시작할 순 없을까

문득 떠오르는 엉터리 생각  
지금의 인생에  
아쉬운 것이 있어서인가  
아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가

## 교회소식

- 다음 주일 오후예배는 동대구교회당에서 대구지역 재건 교회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